

오릭스 “이대호 영입 20일부터 속공”

마치 결별 기다리는 내용...롯데 “불쾌”
일부선 “오릭스-이대호 교감 나뉘” 분석

리그가 다르더라도 당연히 다른 팀 소속 선수를 탐낼 수도 있고 욕심이 난다면 영입 작전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원소속구단인 롯데가 프리에이전트(FA) 이대호에 대해 배타적인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호와 빨리 롯데와 헤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달려들겠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호 영입을 목표로 하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의 무분별한 행동에 롯데 자이언츠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대호에 몸 단 오릭스

‘스포츠닛폰’은 15일, “이대호에게 하루 빨리 말을 걸고 싶다. 우리에게만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는 무라야마 요시오 오릭스 구단 본부장의 말을 소개하며 ‘오릭스가 롯데에서 FA로 풀린 이대호를 영입하기 위해 다른 구단과의 교섭이 가능해지는 20일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올시즌 초반부터 이대호에게 꾸준한 관심을 나타내온 오릭스가 이대호에게 2년간 5억엔(75억원) 안팎을 배팅할 것이라는 내용도 현지 언론을 통해 일찌감치 공개됐다. 오릭스가 이대호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우타 거포의 부재를 해결하면서 마케팅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오릭스가 이대호 영입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게 일본 소식통들의 공통적 견해다.

●9일 신분 조회의 의미?

우선협상기간 개시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릭스는 일본야구기구(NPB)를 통해 한국 야구위원회(KBO)에 이대호의 신분조회를 요청했고, ‘20일부터 협상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다. 통상 신분조회는 계약 성사 직전에 형식상 거치는 마지막 절차. 하지만 오릭스는 우선협상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대해 한일 야구 상황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오릭스가 신분조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오릭스가 일본내 타 구단들에게 ‘이대호는 우리가 선점했으니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면서 “오릭스가 이대호와 물밑 접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충분히 교감을 나눴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릭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롯데, “용납할 수 없는 결례”

롯데 배재후 단장은 “9일 신분조회요청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 ‘아무때나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오릭스측 발언이나 보도 내용은 굉장히 불쾌하다. 현재 이대호와 한창 계약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대호의 잔류를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마치 결별을 기다리는 듯한 내용은 아무리 리그가 다르더라도 동종 업계의 같은 야구단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례다”고 밝혔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오릭스가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해 (뉴욕)양키스가 그렇게 말한다면, 오릭스는 기분이 좋겠는가”라고 되물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d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진정한 스타는 멘토가 되는 것”

두산 김진욱 감독 ‘책임감’ 강조

두산 김진욱(51) 감독은 부임 직후 ‘선수들과의 소통’을 화두로 내세우며 자율야구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 뒤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전제로 깔고 있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만 “감독의 역할은 중재와 조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선수들의 야구, 그리고 팬들을 대하는 마인드와 태도에 어떤 것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예정이다. “기술적인 스타가 아닌 멘토가 될 수 있는 스타가 돼야 한다”는 말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김 감독은 선수단과 첫 상견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야구선수들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인임을 환기시키며 “안팎에서 행동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김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단순히 홈런을 잘 치고, 타점을 많이 올리고, 공을 잘 던지는 것이 프로야구선수의 전부는 아니다”며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스타가 돼야 한다. 그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나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 비록 어린 선수일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김진욱 감독 ▶

‘내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롯데에 남고 싶다’는 이대호는 17일로 예정된 구단과의 2차 협상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스포츠동아DB

이대호, 내일 두번째 만남...사인할까?

롯데 2차 협상엔 배재후 단장 나설 듯

잔류나 이별이냐의 갈림길, 17일은 ‘파이널 콜’이 될 것인가.

프리에이전트(FA) 최대 거물 이대호와 원소속구단 롯데가 15일 1차 협상을 가졌다. 이문한 운영부장이 협상 파트너로 나선

가운데 1차 협상은 그야말로 ‘탐색전’으로 끝났다. ‘첫 만남에서 구단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구단은 보다 진중한 접근을 위해 구체적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 외적인 부분으로 화제를 유도했다. 이대호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눴다”며 “17일 구단이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

초 얘기한대로 구단이 내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롯데에 남고 싶다”고 밝혔다.

롯데는 2차 협상에서 배재후 단장이 직접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협상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역대 최고대우+α’ 보장 의사만 전달한 만큼, ‘플러스 α’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조건이 주도권을 쥐어 이대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양측은 17일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을까?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인 계약 발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롯데나 이대호 모두 ‘한번 더’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구단대로 이대호를 잡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하는 비난 여론을 감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려 할 테고, 선수 역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롯데 잔류’임을 강조한 만큼 마지막까지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도현 기자

편집 | 김남은 기자 kna81@donga.com 트위터 @ed_silver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지정
대구 「국제육상도시」 선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대구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구가 세계 2번째로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지정 국제육상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육상발전을 위하여 대구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 국제육상도시

IAAF(국제육상경기연맹)가 세계 육상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시를 IAAF 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하는 상으로, 1993년 제4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이어 대구가 18년만에 역대 두 번째로 이 상을 수상했다.